

# 도자기, 풍류를 품다

국립광주박물관, 조선시대 풍류 조명 '조선의 공간과 도자기' 전 인기  
희경루방회도·소쇄원 광풍각 재해석 관심...시문 담긴 도자기 등 다채

"광산은 명승지라, 옛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득 하구나/ 부(府)라 칭한 것이 어느 시대며, 주(州)가 된 것이 몇 년이던가/ 산천은 도 안에서 제일이요. 민재(民才)와 어진 사람 많다고 일컬어 왔네/ 서한(西韓) 마루 넓은 줄을 줄을 자못 깨달아 올라가 단편시 몇 수를 읊조리노라"

위 시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며 곳곳의 누정에 시문을 남겼던 성임(1421~1484)이 지은 '산천을 일도(山天推一)도'라는 시다. 작품이 수록된 문집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광산현'으로, 여기에는 누정에 관한 기록과 함께 여러 조목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영이 있다. 제영(題詠)은 제목을 붙여 시를 짓는 것이지, 지역의 인문을 비롯해 자연 등을 작품으로 창작해 모은 것을 말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에서 진행 중인 '조선의 공간과 도자기' 전(9월 22일까지) 인기가 높다. 이번 전시는 도자기와 풍류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시간으로, 누정은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풍류와 학문 그리고 교유를 나누었던 대표 공간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희경루와 소쇄원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다. 지난 2022년 광주공원에 증정한

'희경루'의 중요한 원형 자료인 '희경루방회도'와 조선 최고의 민간 정원인 소쇄원 광풍각(光風閣)을 재해석했는데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렇듯 풍류 공간인 정자에서 시문을 짓고 읊으며 차와 술을 마셨다. 풍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이 도자기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시 도입부는 '풍류의 공간, 정자'를 주제로 구현했다.

가장 눈에 띄는 '희경루방회도'는 지난 2023년 광주공원에 증정한 희경루(喜慶樓)의 원형 자료다. 희경루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상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신숙주는 희경루를 일컬어 "남북이 5칸이고 동서가 4칸이니 넓고 훌륭한 것이 동방에서 제일이었다"라고 칭했다.

'희경루방회도' 속 누각은 종종 건물로 기둥이 높고 위용이 만만치 않다. 1567년 이곳에서 열린 연회에는 광주목사 최응룡을 비롯해 전라도관찰사 강섬, 전 승문원부정사 임복, 전라도병마우후 유극공, 전 낙안군수 남효용 등 5명이 참석했다. 30여 명이 넘는 기녀들이 누대에 올라와 악기를 연주하



'적벽부'를 쓴 병.

고 춤을 추고 있는데, 그들 앞에 놓인 희미한 그릇은 도자기로 보인다.

희경루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지나면 '최고의 민간 정원 소쇄원 그리고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공간이 관객을 맞는다. 특히 소쇄원 광풍각은 도자기가 놓여 있던 공간, 이를 둘러싼 외부 공간을 초점화했다. 마치 시간을 역류해 지난 시대로 돌아가 정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다음은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가운데 '제21영'에 해당하는 시다.

"빙빙 도는 물살에 술잔 띄워보내며/ 물살 치는 돌 웅덩이에 둘러앉으면/ 소반의 술잔 두 뜻만 대로 넉넉해/ 빙빙 도는 물결에 절로 오고가니/ 띄우는 술잔 한가로이 서로 권하네."

시와, 차, 술, 도자기, 정자는 모두 풍류로 수렴된다. 접민 음료인 차와 술을 위한 그릇, 그리고 그릇에 새겨진 시는 선조들이 즐겼던 풍류의 한 단면을



풍류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다양한 도자기들.

보여준다.

문인들의 아취가 오롯이 담긴 다채로운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문인이 닦고 싶어했던 '사군자 무늬 백자'를 비롯해 귀한 물건을 품은 '기명절지 무늬 백자' 등을 보는 호사는 어느 즐거움에 비할 바 아니다.

한편 이애령 관장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재해석한 공간은 오늘날과 비교해 지나는 시간의 궤차와 의미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조상들이 즐겼던 누정과 도자기로 연계된 풍류문화를 통해 무더위와 장마로 지친 스트레스를 잠시 날려 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풍류문화의 상징인 '소쇄원 광풍각'을 재해석한 공간.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시 날려 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동화 같은 유년의 빛나던 한 때

김도영 작가 '그리움을 그리다' 다음달 20일까지 드영미술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그리움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는 시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후회와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 반면 그립고 아련한 추억이 있기도 하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돌아보는 과거는 그렇듯 재해석이라는 '렌즈'를 통과한다. 당시에는 몰랐던 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새로 느끼거나 해석하기도 한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화시킨다'는 말이나, '부자는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 위대함을 빗댄 표현이다.

드영미술관 관장인 김도영 작가가 '그리움을 그리다'를 모티브로 전시를 연다.

지난 26일 개막해 오는 8월 20일까지 드영미술관 전시실 1, 2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가장 순수했던 시간을 소환한다. 시적이며 서정적인 작품들은 유년의 빛나는 한 때, 순수한 상상의 세계를 담고 있다. '아버지의 꽃다발', '연인', '그리움을 그리다', '오늘은 행복한 날' 등은 작가의 유년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어떤 해석이나 심오한 사유에 앞서 그림을 보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

준다. 화사함과 은은함, 깊이가 느껴진다.

'아버지의 꽃다발'은 세상 어느 꽃다발보다 아름답고 사랑을 담은 선물이다. 꽃망울마다 앞날에 대한 꿈과 막연한 설렘의 감정이 맺혀 있다. 한편으로 작가의 유년의 한 자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있었을 법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일깨운다.

손성주 학예연구원은 "이번 작품들은 과거의 기억에서 재해석된 이미지와 작가만의 언어로 기호화한 그림들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며 "특히 작품에서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모티브가 됐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움을 그리다'는 동화 속 한 장면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달빛 아래 신비하면서도 환상적인 풍경, 자연 조목이 하나로 어우러진 장면은 발길을 붙들다. 특히 공간과 사물을 감싸안은 보랏빛은 그 시절이 귀한 시간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작가는 "유년의 어느 해 봄, 아버지가 꺾어주었던 진달래꽃과 그 꽃을 따먹던 모습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누구에게나 있을 '그리움의 시간'을 한번쯤 떠올



'아버지의 꽃다발'

려봤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드영미술관 관장인 김 작가는 광주광역시 박물관·미술관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꿈꾸는 계절' 전 등 다수 개인전을 비롯해 한국현대미술작가 10인전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더위 물러 나간다 '얼~쭉'

광주예술의전당 상설공연 '청년 국악콘서트' 8월 8~9일 공연마루

매주 토, 일요일마다 광주시립 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가 함께하는 '광주상설공연'은 다양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클래식, 발레부터 장구, 판소리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 8월 광주상설공연 일환으로 '청년 국악콘서트'를 8-9일(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 특별기획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8일 (사)한국 전통예술단 아울(이하 아울)의 '아울 Variation'으로 막을 올린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비나리'를 재해석한 '해피 바이러스', 설장구 연주곡 '두드림', 메나리토리를 중심으로 연주한 정선아리랑인 'G\_one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전남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서 유래한 '서한우제 버구춤'을 비롯해 '원주 랩소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법'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아울은 전주대사습놀이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유럽 권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밴드 '상자루' 멤버 남성훈(왼쪽부터), 조성윤, 권효창.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알리고 있다. 이튿날(9일)에는 '상자 속 자루 음악, 상자루' 팀이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노래들을 선사한다. 음악감독 역을 맡아 직접 작업한 '엔딩', 대양정 주법을 활용한 '땡', '지신RV', '경복스윙'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한국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음악을 접목하는 밴드 '상자루'는 전통음악, 농악 그리고 민속 예술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성훈, 조성윤, 권효창 등 국악연주자들 3인으로 이뤄졌다. 전당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

# 노벨문학상 시를 강의로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8월5일~9월 3일 타고르 등 10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문학상을 꼽으라면 단연 노벨문학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상작은 뛰어난 작품성 외에도 시대적 상황 등과 맞물린 외적 요인도 감안이 됐다. 세계 문학사를 장식한 소설가 희곡작가, 시인 등이 많이 있지만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들은 타고르, 엘리트, 옥타비오 파스 등 저명한 문인들이 많다.

노벨문학상 수상 시를 강의로 듣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사진)는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화요일 오전 10시) 노벨문학상 수상 시를 강의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산책'을 주제로 모두 10회 진행되는 이번 강연 강사는 시인인 석연경 문학평론가.

이번 강의에서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루이즈 클러크,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셰이머스 히니, 파블로 네루다, 토마스 트란스트뢰메르, 후안 라몬 히메네스, T. S. 엘리엇,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밥 딜런 등 10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의 삶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시를 감상한다.



석연경 시인은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들의 작품은 뛰어난 문학성을 담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적 담론 등도 투영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들"이라며 "익히 알려진 세계적인 시인들의 시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연경인문문화 예술연구소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하고 솜품 도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청년문화 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솜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후 공연·전시 관람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나만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방법', '사용 후기' 등 주제는 자유다.

지원자는 '솜품' (20초~1분 30초 내외) 영상을

제작한 뒤, 지원자 SNS 계정에 업로드하고 신청서(문예위 누리집에서)를 다온반भा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영상은 심사를 거쳐 총 37팀을 선정해 총상금 28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9세(2005년 출생)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